

외면받는 장애인 정책... 일상 못누리는 장애인들

오늘 '장애인의 날' 40주년... 광주·전남 현실은

광주 저상버스 도입 이행률 33%... 전용차량 '새빛콜'은 법정대수 못미쳐 매년 대책 외쳐도 대답없는 메아리... 광주·전남 장애인들 대책 요구 시위 이동권 보장 등 최종증장애인 지원 자립 지원할 중장기 정책 마련 시급

광주·전남의 장애인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40년이 흘렀음에도, 장애인 정책의 제화나 이행 노력이 미흡하다는 게 장애인 단체 목소리다.

이같은 점을 들어 광주·전남 장애인단체 등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장애인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더

딘 장애인 정책 집행 의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의 요구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 지원방안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 등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동권의 경우 광주시는 지킨 것보다 지키지 않은 계획이 많다는 게 장애인단체 설명이다.

당장, 광주시는 '1~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858대의 저상버스

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도입된 저상버스는 298대로 계획 대비 33%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장애인단체 입장이다. 광주시는 올해도 52대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40대만 구매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킨 것보다 지키지 않은 계획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이른바 '새빛콜'도 문제로 꼽혔다.

관련 법(중증장애인 150명 당 1대)에 따르면 183대를 갖춰야 하지만 116대만 운영중이라는 것이다. 올해 20대를 추가로 구매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20대를 폐차할 예정이라 법정 기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게 장애인단체측 설명이다.

전남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전남도청 1층 로비에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365일 운영,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 대수 확대, 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도비 지원, 교통약자 광역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등을 요구하면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에게만 장애인들의 돌봄과 부양을 맡기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측은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함께 목욕·식사·산책 등 돌봄·일상생활 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는 65세 이상 장애인이 18명 추가로 늘어나는데도,이들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현재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장애인 차별연대가 파악한 광주시 뇌병변 장애인은 총 6893명으로, 이들 뇌병변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고 신체적 고통과 언어장애, 만성질환 등으로 재활·치료 및 지원이 절실시 필요하다.

뇌병변장애인 개인의 월평균 소득도 100만원 미만인 79.4%, 가구당 월평균 소득도 200만원 미만인 51.8%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런데도 뇌병변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장애인단체 목소리다.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 및 감염병 대응도=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016년 시작된 광주시의 '탈시설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이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웠다. '2차 광주시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22년~26년)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과 내 탈시설·자립지원 전담팀과 전문가 배치도 요구했다.

바이러스 감염에 더욱 취약한 장애인들의 코로나 감염 확산을 우려, ▲장애인들을 위한 감염정보 접근성 확보 ▲장애인 선별 진료소 지정 및 이동지원 방안 ▲특거 중증 장애인 자가격리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고3 국어·수학 점수 전국 평균 상회

3월 연합학력평가 성적 분석 영어 1등급 비율은 3%대 전망

광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난달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국어와 수학 과목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교육청 진학분석팀과 진학부장협의회가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3월 학평 실재점 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 평균 점수는 62.63점으로 전국 평균 58.58보다 4점 이상 높았다. 국어 선택 과목별 평균 점수의 경우 '화법과 작문' 61.83점(전국평균 58.13점), '언어와 매체' 65.66점(전국평균 59.85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수학 평균 점수도 41.49점으로 전국 평균 38.07점보다 3점 이상 높았다. 수학 선택 과목별 평균 점수의 경우 '확률과 통계' 32.92점(전국 평균 30.54점), '미적분' 52.40점(전국평균 50.58점), '기하' 48.62점(전국평균 44.14점)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지역 학생들의 등급 비율을 분석 중이다. 영어의 경우 전국 1등급 비율이 3.67%에 불과해 역대 학평에서 가장 낮았고, 광

주지역 학생들의 학력 추세로 보면 1등급 비율이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5~7%가량이다.

시 교육청의 분석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 표준점수 6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는 전남대 영어교육과·국어교육과·영어영문학과·경영학부 365~376점,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341점 내외로 판단했다.

의예과 435점, 의예과(지역) 434점, 치의학과(지역 포함) 433점,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약학부 431점, 수의예과 424점, 전기공학과·수학교육과·기계공학부 393~411점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선대의 경우 의예과 434점, 의예과(지역) 433점, 치의예과(지역 포함) 432점,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약학과 429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수능 등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학지도 자료집 '빛고를 대로' 시리즈(1~7권) 보급 ▲고교 현장 맞춤형 대입지원 컨설팅 '빛고를 플랫폼' 운영 ▲대입 대비 광주진로진학박람회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 ▲수시 집중 상담(8월 중) 등을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도청 분수대 가동 19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분수대가 가동을 시작했다. 분수대는 오는 10월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 운영되며, 날씨와 광장 행사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볼거리를 선사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가상화폐 투자 미끼 27억 가로챈 2명 징역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꾀어 27억여원을 가로챈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50)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5)씨는 징역 2

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차리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파나마에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로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게 속아 피해자들이 건넨 돈만 27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의 가상화폐 사업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 사기 범행으로,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거짓말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영된 욕심으로 A씨 등에게 속아넘어갔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일부 회수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토바이 들이받아 2명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검거

술에 만취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남경찰은 19일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

께 술에 만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고 해남군 황산면 관촌 교차로 인근을 지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어두워서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창간69주년
광주일보

★ 아이 양육하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일상이 드라마가 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행복도시광양

Sunshine
GWANGYANG

광양시